

## <군의 기본 경계작전,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 합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우리 군에서는 명백한 경계작전실패가 있었습니다. 신원미상의 인원이 우리 측 동부전선 이남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입니다. 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계 작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계 작전의 실패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경계 작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경계 작전은 우리 군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전인 만큼 실패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GOP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경계 작전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환 선대위 후보직속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 : 이종석)

국방정책위원회위원장(김병주, 모종화)

스마트강군위원회위원장(박종진, 김운용, 황인권)